

GrAce

은하키 2020.4 vol.207 / April
강남중앙침례교회

CONTENS

- p.2 담임목사 칼럼 (VII. 부족함의 아류들을 조심하라(1))
- p.3 강청도 멈추지 않습니다 (강청 간증)
- p.4-5 교회 방역의 이모저모 (교회 월간 사역)
- p.6-7 우리의 예배는 달려가는 중입니다 (영상 예배 간증)
- p.8-9 김충기 목사의 삶과 사역 2부
- p.10 쓰임 수상자 글
- p.11 구약개론 / 신앙의 베이스
- p.12 광고



영혼에게 아이와
같은 것은 중입니다

칼럼
COLUMN

VII. 부족함의 아류들을 조심해라(1)

성경 속의 부족한 사람들이 다 쓰임 받은 것이 아니다. 부족하다고 무조건 하나님 일터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고용기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갈릴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다. 갈릴리에 모든 사람이 배불렀던 것도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렸지만, 그중에 열 두해를 앓은 혈루병 여인처럼 자기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응답이 있었다. 가난해도 괜찮다. 병이 생겨 몸이 문드러져도 괜찮다.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한다. 부족함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나같이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 이유는 부족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부족함의 아류에 속았기 때문이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응답이 그곳에 있다. 최고가 아니어도 좋다. 유일한 사람이 되라.

이여령 교수는 그의 저서 <디지로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The best one 이 되기보다 The only one이 되라.”

우리는 저마다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자면 최고가 있고 2인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 모두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을 지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다.

언젠가 어느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할 때의 일이다. 그날 나는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 시간 이상 설교를 했다. 다음날이 되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나에게 왔다. 그리고는 어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오늘까지 생각해보았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잘하는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집사님이 모르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고 말해주었더니, 정말 자기는 없다고 역정을 내면서 뒤돌아섰다. 몇 발자국을 가던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다시 되돌아 나에게로 왔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머뭇거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한 가지 있는 한데…….” “뭔데요?”

그러자, 부끄럽다는 듯 다시 손사래를 치면서 뒤돌아섰다. 나는 급하게 불러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집사님, 일단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쓰실지 안쓰실지는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일단 그게 뭔지 말해보세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 분이 손을 입에 대고 부끄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남들보다 식성이 좋아 많이 먹어요. 호호호”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집사님은 제가 찾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앞으로 담임목사님



최병락 담임목사

이나 교구목사님 따라서 심방을 다니세요. 그리고 심방에서 나오는 음식을 목사님들 대신 먹어주세요. 그러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농담 같지만 사실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가 자신있어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성도가 늘어나고 심방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목사’인지 ‘먹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런 식성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남들보다 나은 부분이 반드시 있다. 생각이 게을러서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지만 잠시만이라도 좌중참하고 생각해보면 최고의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은사인 유일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은사대로 섬기기’와 ‘일인일사역’이다. 하나님은 빛들의 자녀들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성도들이 저마다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때만이 교회가 순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교회 안에 어느새 세상의 출세방식이 들어와 있다. 어느 초등학교를 나와서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를 나와서 SKY대학을 졸업하면 출세가 보장이 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프레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몇 년만에 집사가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일등신자가 되고 교회 안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수준의 측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집사, 권사, 장로도 은사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 기도와 상담, 그리고 심방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권사가 되어야하고, 섬김과 행정능력등이 탁월한 사람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야한다. 시간이 가면 주어지는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직책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는 교인이 된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았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은사적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들이 원하는 집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은사를 가진 Only one들을 뽑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기의 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어떤 직책에 연연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장로(침례교 안수집사)를 세우려면 서로 양보를 한다. 자기의 은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한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나를 찾아와 애원을 한다. 모두가 팀장으로 팀원으로, 부서장으로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목회초기에 모든 일들을 담임목사 혼자 기획하고 진행하며 지시하던 것이 최근에는 성도들이 나에게 지시를 내린다. 비근한 예로, 우리교회에서 최근에 3일간의 선교부흥회를 했다. 주강사를 섭외하는것 하나만 담임목사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모두 평신도들이 기획을 했다. 나에게 여러 번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지시(?)를 내렸다. 도서소개는 영상으로 몇 분을 해주고, 드라마팀을 어느 순간에 몇 분 간 하는 치밀한 콘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부서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기의 은사들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기 때문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교회였다면, 최고의 몇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었겠지만, 은사대로 움직이는 only one들이 움직여 가는 교회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역을 가능케 한다.

The best one은 The only one의 유사품이다. 유사품에 주의해야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로 하셨지 최고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오스워드 챔버스가 쓴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원제목을 기억해야한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이다. 뜻을 풀어서 본다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the best one이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는 최선이 필요한 것이다. 최고가 되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머물러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반드시 잡아주실 것이다.

최병락, 「부족함」, 두란노, 2015

최 118 25

강청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 겹줄이 되어 예배합니다.

매 주일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며 나누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처음에 저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어려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제가 일하는 곳 원장님이신 박혜정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언젠가 담임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9-24절 '디모데 같은 동역자'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원장님과 함께 합심하여 금요성령집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었고 곧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 더욱 주님을 찾고 매달리며, 저를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 김소담 목사 |

수영이의 달리기

코로나 19 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상예배를 드리며 같이 달리고, 이전보다 더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달렸던 '강청 BTC(Basic Training Course)'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제가 속한 2020 강청1의 BTC(Basic Training Course) 1기는 2월 1일 첫 만남 후 강의를 한 번만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BTC는 멈추지 않고 첫 시간에 정한 자신의 묵상 요일에 맞추어 각자 묵상을 나누는 밴드와 수업하는 시간에 맞추어 진행한 카카오톡 영상 강의 등의 방법으로 지속되었습니다.

BTC 강의에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에 대해 듣고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 누군가와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강의를 듣고 소감도 나눌 수 있어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두 교회에 나가지 못해 힘들고 많이 지쳤을 텐데 BTC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주님의 임재, 은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묵상과 훈련, 강의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오수영 목원 |



BTC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0년 02월 27일 이후로 교회 시설 폐쇄와 각종 모임들을 잠정 중단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BTC(Basic Training Course)'였습니다. BTC는 연 2회, 8주 동안 각각 새신자와 새내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예배 훈련, 기도훈련, 묵상 겸 통독 훈련)을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완주한 BTC 수강생들이 자랑스럽고, 이들이 이끌어 갈 강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 김한아 목사 |

다시 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 성전에서의 기도와 예배로 한주 한주 버틸 힘을 받고 살아왔던 저는 공급이 끊긴 느낌을 받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개인 방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무거운 가정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에 맞서 저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그리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 안에서의 모임은 중단되었지만, 다시 사역이 시작될 때를 대비하는 충분한 쉼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 김민재 목사 |

빛을 전한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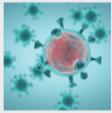
이번 온라인예배, 강청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기에 앞으로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면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이때가 빛을 전하며 세상을 역전시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청은 더욱 성령 충만하고 훈련돼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종영 목원 |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온 봉사자와 교역자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강남에 우주인이 왔나? 흰 옷 입은 거리의 방역사, 그들의 정체는? #미션라이프 #착한우주인 #코로나파이터

조회수 1,351회 · 2020. 3. 19.

👍 25 🗨️ 0 ➦ 공유 📌 저장 ...



미션라이프
구독자 1.56만명

구독

서울 중심가인 강남구 논현동. 식당 카페 사무실을 다니며 소독약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흰 방역복과 무거운 소독기로 무장한 이들은 논현동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출동한 거리의 방역사들 이었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주변 상가들은 “마음적이라도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교역자, 직원, 성도로 이루어진 이 방역사들은 교회 주변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조치였다.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담임목사는 “교회가 이 도시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인터뷰로 전달했다.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배우게 된다.”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거리의 방역사들(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교회가 이 도시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인터뷰로 전달했다.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배우게 된다.”

| 최병락 담임목사 |

교회가 주변 상가 방역... “고통 나눠야죠”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무실카페 등 찾아소독

입력 2020-03-16 00:03



방호복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충구 집사가 지난 13일 교회 인근 상가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강남중앙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방역봉사를 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김 대표는 “교회에서 방역해 준다는 얘기를 했더니 심리적 불안을 씻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들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건물 카페 주인은 “코로나19로 가게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문을 열어도 불안했는데 교회에서 방역을 해 주니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주위 사람마저 경계하게 했다. 교회도 심방이나 전도를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선 뜻밖의 풍경이 연출됐다. 낮선 교회 사람들이 방문했는데도 상가와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차를 대접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 작업을 진행한 현장 이야기다.

이충구 집사(방역 전문가 / 강중침 성도)와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주변을 방역했다. 방문지는 상가 건물 1층에 입주한 부동산중개사무소였다. 방호복, 고글, 방진 마스크로 중무장한 이 집사가 초미립 분사기를 작동했다.

이날 건물 방역은 중개업소 김문호 대표가 교회에 요청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교회의 방역 봉사 소식을 듣고 상가 사람들에게 방역을 제안했다. 안경점, 세무사 사무실, 웨딩업체와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이들의 종교는 없거나 제각각이었다.

김 대표는 “교회에서 방역해 준다는 얘기를 했더니 심리적 불안을 씻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들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건물 카페 주인은 “코로나19로 가게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문을 열어도 불안했는데 교회에서 방역을 해 주니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극심해지면서 방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방역기는 비싸고 소독약과 방호복은 물량이 부족해 구하기도 어렵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모로 부담될 수밖에 없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방역에 나선 이유다. 대상은 교회 교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요청하면 어디든 가기로 했다.

최병락 목사는 “교회들이 땅끝만 사명으로 생각하느라 예루살렘을 잇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팀 켈러는 책 ‘센터 처치’에서 교회는 그 교회가 있게 해 준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서 “교회가 이웃들과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시사 > 전제기사

[힘내]소대구침례교단 교회, 대구-경북 돕기 위해 힘 모았다



최병락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왼쪽 세 번째)가 3일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목회자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무 김일엽 목사(네 번째)에게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제공

왼쪽부터 순서대로

1. 2020. 3. 19. 일자 유튜브브 미션라이프에서 발체
2. 2020. 3. 16 일자 국민일보에서 발체
3. 2020. 3. 3 일자 국민일보에서 발체
4. 2020. 3. 4 일자 크리스찬연합신문에서 발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지난 28일부터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구제헌금 1억원과 세탁세제 2000장을 내놨다. 최병락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대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의견을 모았다”면서 “논의한 끝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물론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와 소속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대구와 경북 지역 돕기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43일만인 3일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총 5186명의 확진자 중 80%가량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와 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와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여의도침례교회(국명호 목사)는 이날 교단을 통해 긴급 목회자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지난 28일부터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구제헌금 1억원과 세탁세제 2000장을 내놨다. 최병락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대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의견을 모았다”면서 “논의한 끝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물론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구촌교회와 여의도침례교회도 이날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놨다. 국명호 목사는 “교회별로 지원하기보다 총회 차원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모았다”며 “여의도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되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성광교회(유관재 목사)는 하루 앞서 20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물품을 총회에 전달했다. 유관재 목사는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특별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고통받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단은 4일 새벽 대구로 이동해 6500여장의 마스크와 400여개 소독 스프레이를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마스크 등은 지역교회들을 통해 모은 것이다.

교단 총무인 김일엽 목사는 “후원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강남중앙침례교회, 대구 경북에 사랑의헌금과 구호물품 전달

2020-03-04 15:44 입력



헌금 1억원과 2000만원 상당의 비누...미자립교회 통해 지역주민 돕는다

유 대표는 “구호품 및 물품 부족으로 인해 씻기도 어려운 의료진과,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인 확진자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무궁화에서 제공한 세제와 비누들

강중침 성도인 (주)무궁화의 유성준 대표가 지원한 2000만원 상당의 세제와 비누도 오는 5일 대구시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유 대표는 “구호품 및 물품 부족으로 인해 씻기도 어려운 의료진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인 확진자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중침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강남구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지하철역에서 일회용 손세정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교회 주변 식당과 상점을 방문해 무료로 방역작업으로 봉사하는 등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

최병락 목사는 “강중침은 국가와 사회의 어려움은 물론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늘 헌금과 봉사로 참여했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에 헌신되어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우리교회가 함께 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윤재철 총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내시라.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줄 믿는다”라고 따뜻한 격려의 말도 전했다.

크리스찬 연합 신문 임경래 기자 cupnews@naver.com

우리의 예배는 달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컸지만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비록 영상화면에 대한 집중이 좀 더 요구되고 예배 드리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일 아침 자고 있는 딸아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기도만 해주었는데 이번일로 몇 번 실패했던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간에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신앙 유산으로 믿음 지켜가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바쁘기만 했던 일상을 잠시 멈춤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며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과 간단한 기도를 목장 카톡방에 공유하기도 하며 평소 못했던 초등저 교역자와 선생님들과 전화 심방하기도 하고 맡겨진 어린 영혼들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 생활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계획이 개인과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때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함께 모여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되길 기도합니다.

“너희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 이상도 목사 |

하나님의 시선

인류시대사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뜻밖의 '코로나19' 사태의 난국을 맞이 했을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였다는 뉴스 보도와 함께 앞으로 확산 될 추가 감염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때 온라인 영상예배 '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이근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말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별 때일수록 내 안에 담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지를 생각하며 일단 결혼식을 뒤로 미루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당사자들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웨딩에 관련된 것들을 연기 및 취소하려니 손해가 막심하다며 그대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언젠가 금요성령집회때 담임목사님께서 “한 집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번뜩 생각 나 두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강남구 2명 감염 확진자 발표'와 함께 교회에서의 예배 및 예식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문제는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주셔야 함을 믿고 도고기도를 목원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도 순조롭게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금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배려해주신 담임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새 출발하는 가정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 김은주 목사 |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회사일도 많은데 코로나 관련된 일이 더해지고,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고, 매일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외출 준비 후 차를 몰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집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던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가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역자분들의 간절한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었고, 성전 예배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설교말씀 받아 적은 메모를 사진 찍어 카톡 인증샷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풍습도 봅니다.

성전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아니 어쩌면 그 보다 더한 감동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 예배를 드렸던 심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요즘은 성전에서 보다 더 크게 찬송을 부르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와 같이 당연히 느꼈던 성전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해왔던 이전의 신앙생활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 간에 대화가 풍성해진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십니다. 환난중에서 이러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말씀해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장 3, 4절)’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 또 다른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기에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 김세훈 목사 |



힘차고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의 공지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직전까지, 마음 속에는 '그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동일한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가며 시작했는데, 막상 TV 앞에 모여 찬송할 때는 교회에서와 같은 힘찬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찬감소음으로 이웃과 불편할 일이 생길까 봐 스스로 목소리를 낮춰 부르곤 있었고, 또 전도사님의 찬양 리드를 따라가지 못해 박자가 안 맞거나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어긋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홉 살 된 막내 민호를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알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찬송도 곧잘 따라 불렀고, 정말 집이 떠나 갈 듯 큰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막내의 모습을 통해 저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힘차게 온전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지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찬송 소리는 점차 커져갔고, 이제는 옆집, 그리고 위아래 집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도 간절히 하나님께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갔을 때, 신문과 뉴스에서 일부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문제 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남 시골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그 동네 교회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성도입니다. 먼 거리를 교회 승합차를 통해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 곳은 저희 강중침과 같은 방송시스템이 없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계속 예배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부모님과 통화한 후, 새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맘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듯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옆드려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 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 손경석/김현선 목사 |

하나님은 두려움을 채워주심으로 바꿔주십니다.

갑작스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이 셋 가정보육을 하게 된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어떻게 잘 지낼까?'를 고민했습니다. '스킨십 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그림으로 그려보는 등 아이들을 위해서는 노력하였지만, 정작 남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아프면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래 전 저와 연애를 시작할 때 군대에서 갑작스럽게 공팔에 이상이 생겨 풍선처럼 물이 몸에 꽂 차서 군복무도 마치지 못하였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신장약을 먹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약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감기가 옮지 않도록 늘 주의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걱정하던 남편의 마음이 온라인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씩 담대해짐이 느껴지면서 찬양시간과, 합심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매번 새로운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채워짐으로 인해 금요일예배, 주일예배를 온 가족이 드리기 위해 예배시간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과 연결해주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가끔 예배드리는 중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중간 중간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앉아서 예배드리자고 말해야 하기도 하는, 이런 저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게도 하시며, 함께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이 지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올해 준비된 목장을 통해 알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제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늘도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자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연 목사 |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많은 요즘이다. 여느 때 주일보다는 조금은 느리게 아침을 시작하며,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예배 시작 전 TV에 강중침 유튜브를 맞추고, 예배주소를 카톡 남전도 공지방에 올리고 예배 준비를 한다. 조금이나마 교회 본당에 앉아 있는 기분을 내기 위해 책상에 앉고 성경과 바인더를 꺼내고, 기도와 준비찬양을 힘차게 함께 부르며 바로 여기가 예배당이라 생각하며 예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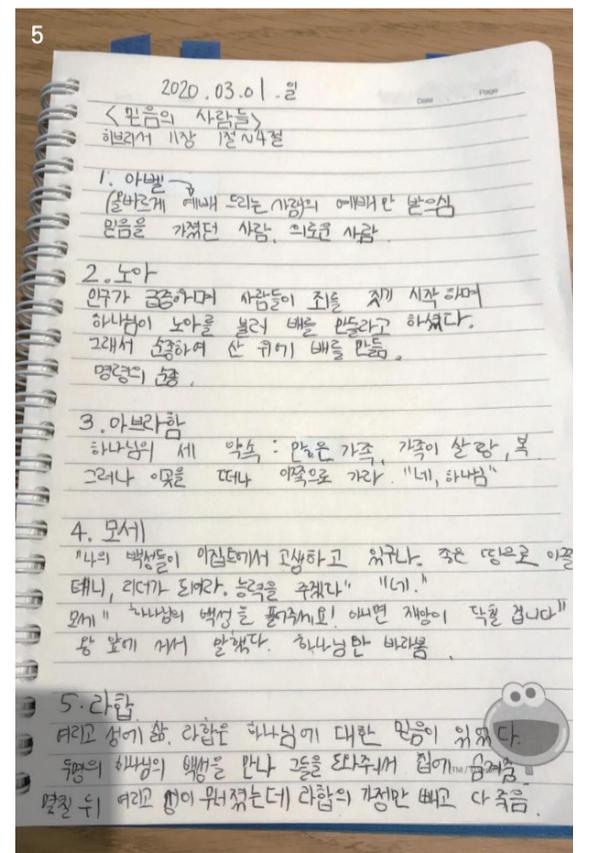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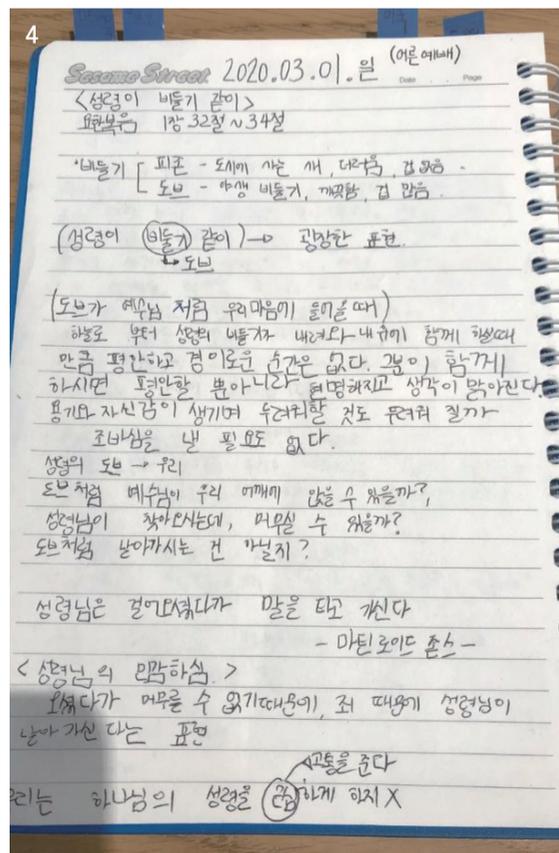
목사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평소에도 이렇게 열중했으면 더 많은 은혜가 넘쳤겠지' 생각한다. 영상광고를 보면서 주변을 돌며 소독하고 봉사하는 교역자님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움직이는 담임목사님과 강중침에 자부심을 느끼며, 수고하시는 강중침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벌써 한 달째 이다. 외출을 삼가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등 교회 사람들이 그림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이 느끼며, 모두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며, 그동안 내가 누렸던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새삼 느낀다. 모두 잘 계시겠지?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일로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나며 우리의 적에서 공공의 적으로, 그리고 세계 각국에 코로나에 잘 대처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래도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며 앞 다투어 귀국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큰 자부심이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 다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겠지!

코로나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 오봉택 목사 |

1. 이상도 목사 가정
2. 김은주 목사 가정
3. 김세훈 목사
4. 최예원 학생(초등처)이 영상예배 드리며 쓴 정리글
5. 최예원 학생(초등처)이 영상예배 드리며 쓴 정리글2





“불의 사자” 김충기 목사의 삶과 사역 (2부)

7. 사역 평가

1) 말씀 중심의 사역자

김충기 목사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늘 김충기 목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고민들로 그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변화들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설교할 때에 성경구절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었다. 직접인용을 통해 말씀을 전하니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모든 설교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마쳤으며, 성경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도록 설교하였다. 김승진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강남교회 개척 당시 김충기 목사님의 별명은 ‘몇장 몇절 목사님’이었다.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시는 것을 들으면 탄성이 절로 난다. 성경 구절들이 주제별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면 ‘요한복음 몇장 몇절,’ ‘로마서 몇장 몇절,’ ‘사도행전 몇장 몇절,’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영혼을 찌르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성경말씀 그 자체가 영적인 파워로 역사를 한다.

김충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한 노력의 두 번째는 칠판설교를 시작한 것이다. 말로만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설교를 시작한 것이다. 김충기 목사는 설교를 하며, 주제에 대한 개요나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칠판설교의 유익에 대해 허긴 박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오늘날 김충기 목사님이 이 교단과 한국교계에 영력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영성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비결은 그의 ‘칠판설교’의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대중 부흥사들 가운데 유독 ‘칠판설교’라는 독자적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사는 김충기 목사님 뿐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칠판에 도해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말씀을 끝맺도록 풀어 사람의 말이나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김충기 목사님의 칠판설교는 한국개신교 부흥역사에 있어서 기억되어야 할 획기적인 설교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김충기 목사는 가장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였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성경 인용의 방식과 칠판 설교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설교를 전할 수 있었다.

2)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김충기 목사는 1960년 계룡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리고 김충기 목사가 집으로 돌아와 한 것은 9개월간 교회에 앉아 쉬 없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성령께서 김충기 목사의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 김충기 목사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김충기 목사의 기도생활은 능력 있는 목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생각은 그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는데, 서울에 개척을 하고 부흥을 경험하여 교회 건축을 계획할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금요철야기도회를 통해서 성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

3) 위기를 이기는 소명의식

김충기 목사는 전쟁을 통한 생사의 경험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혹은 죽음을 상황이 오더라도 맡겨진 사역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 6월 2일 이러한 김충기 목사에게 위협적인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다. 쉬 없이 부흥집회를 진행하고 주일에는 6번의 설교를 강행했던 그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심방을 위해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나오면서 의식을 잃고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김충기 목사는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다. 의식을 차리고도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기력을 쏟았던 터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약속된 미국 뉴욕연합집회가 있었다.

김충기 목사는 몸을 비록 손가락 하나조차도 원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대로 김충기 목사는 일정이 다가오자 거짓말처럼 일어나 비행기를 탔다. 맡겨진 미국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김충기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였고, 자신이 맡은 소명에 대해 열악한 상황이 올 때에도, 책임

1. 1977년 창립 후 첫 제직임명
2. 말씀 사역자 김충기 목사님
3. 강남중앙침례교회 개척 전의 대구중앙교회
4. 1976년 강남중앙침례교회 창립
5. 양수리수양관 대성전 및 숙소 신축공사 기공예배
6. 성령 운동가 김충기 목사님
7. 침례교회세계대회
8. 한국기독교성령일백인일백한정교회 선정
9. 한국기독교성령일백인일백한정교회 선정2
10. 양수리수양관 봉헌예배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였다. 이러한 김충기 목사의 소명의식은 그의 좌우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4) 복음 선포와 교회개척의 정신

김충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중심을 복음 선포와 교회 개척으로 보고 힘을 쏟았다. 김충기 목사는 이처럼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령에 중점을 두었고, 열정을 쏟았다. 이러한 영혼구령의 열정은 교회 개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고, 교회 개척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흥의 터전이었던 대구 중앙교회를 사임하고 서울로 개척한 일이었다. 김충기 목사가 마음을 바꾸어 서울로 개척하게 된 원인에 대해 피영민 목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김충기 목사는 고령 지역에서 교회 묘지를 매입하고 동촌에 있는 비행장에 새로운 침례교회를 개척하고자 했고, 월배 지역에도 침례교회의 개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버스도 사고, 교회를 더 확장한 연후에 지교회를 개척하자고 김충기 목사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김충기 목사는 이러한 반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구를 떠나 서울에서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김충기 목사는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었다. 그는 국내 30여 개의 개척교회와 3개의 지교회, 20여 개의 해외 교회를 개척하였고, 선교사 파송과 선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김충기 목사 자신도 기회가 닿는 대로 국내·외로 순회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





5) 능력의 설교자

김충기 목사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다. 김충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며, 믿는 성도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다짐할 수 있었다. 김충기 목사의 이러한 영감이 넘치는 권능의 설교에 대해 이호문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자이다. 그의 사자후는 언제나 불처럼 뜨겁고, 그의 함축되고 잘 정돈된 메시지는 어떤 강단에서 외쳐 지든 간에 양날 선 칼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고 또 찌른다. 실제로 본인이 만난 잘 믿는 평신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묻는 나에게 ‘김충기 목사의 부흥집회 때 예수 믿게 되었다’거나 ‘김충기 목사의 집회의 말씀을 거꾸러져 오늘날 장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여럿 만났을 정도로 그의 설교는 가히 영감 넘치는 권능의 설교이다.

이와 같이 김충기 목사는 말씀 중심의 사역자였으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였으며, 위기를 이기는 소명 의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복음 선포와 교회개혁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열정을 쏟는 능력의 설교자였다. 그의 저서로는 구역예배설교,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남겨두신 하나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리는 하나님이 있다.

8. 부흥 운동의 공헌

김충기 목사의 부흥운동이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에 끼친 공헌은 수량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지대한 것이었다.

1) 동아기독교와 기독교한국침례교회의 가교 역할

1946년 2월에 충남 칠산에서 교단 재건 회의를 했을 때의 동아기독교 잔존 교세는 남한 교회 40개와 약 350명의 교인에 불과하였다. 유력한 타 교파에 귀속하지는 통합받지 못했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한 명의 젊은 동아기독교인이었던 청년 김충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중심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 남침례교회가 미친 영향보다는 동아기독교의 부리가 더욱 강했던 김충기 목사는 그러므로 동아기독교와 이후 침례교 접목의 중심 대들보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침례교의 위상이 높아짐

타교파에 의해서 이단시되고 배척되었던 침례교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침례교의 성서 중심성과 복음성을 크게 홍보함으로써 침례교단이 한국 교회의 당당한 중심 교단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한번은 감리 교단에서 감리사의 위치를 가진 감리교 목사가 시무하는 감리교회에서 부흥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침수례의 성경적 의미를 설파하자 감리교 목사는 큰 은혜를 받고 감리교인 40명에게 침수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감리교 목사는 감리사 총리국이라는 곳에 소환당하여 감리사 직분을 해고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교 목사는 다시 김충기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자기 교회에서 개최하였다. 감리사 직분 해고 당하는 것보다 은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감리교 목사의 가문은 감리교단 내에서 큰 부흥을 이룬 가문이 되었다.

대구에서도 처음에는 김목사를 이단시하던 장로 교회 목사들도 나중에는 도리어 대구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다. 또한 1990년 8월에 하루 일만 명에게 침수례를 베풀 침례교 세계대회를 서울에 유치한 것은 침례교회의 위상을 최고로 높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3) 부흥을 위한 성령운동이 필요함

김충기 목사의 부흥 성회는 교회의 영적, 숫자적 부흥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적과 은사가 꼭 필요한 것임을 한국 교회에 깨우쳐 준 공헌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01년부터 성령 은사 운동이 일어났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성령 은사 운동은 백안시되고 있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성령 은사 운동은 전 교단으로 확산되었고 교회 역사가들은 이를 가리켜 카리스마틱 운동(Charismatic Movement) 라고 하였다. 1960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김충기 목사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운동에 관해서 들어 본 적도 없었다.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언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온 육신을 감싸는 불과 진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산 증거를 보여주었으니, 성령의 은사를 몰랐던 한국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소개한 공헌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성경공부에 의한 교회성장도 교회를 세우는 한 방편이 되겠으나 성령의 은사에 의한 교회 성장도 폭발적인 위력이 있는 방편임을 증거하였다. 사도행전적 역사는 집회마다 일어났다.

4) 획기적인 기도원 시스템 구축

김충기 목사는 한국 기도원 운동 사상 기도원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공헌을 하였다. 호텔급의 숙소와, 최상의 경치를 갖춘 전경, 일류 식당급의 배식 시설, 맑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체육

시설, 일류의 집회 시설을 가진 양수리 수양관은 단지 기도 처소로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기독교 수양 시설의 지평을 열었다. 전국 목회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이 수준 높은 시설의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영적 전쟁의 능력을 충전하는 한국 교회의 보배가 되었다.

5) 개교회 부흥의 모델

김충기 목사는 부흥되는 개교회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공헌이 무엇보다도 큰 것이지만, 부흥의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 개혁을 시도하는 모범을 보인 점이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교인들을 아낌없이 함께 보내주었다는 점이 특이한 것이다. 1997년 5월에 설립된 분당 강남중앙침례교회나, 2001년 1월에 개척된 일산 강남중앙침례교회, 2002년 1월에 개척된 용인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예가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물론 물질적 지원으로 설립된 여러 군부대의 교회나 지역교회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인적 지원의 지원까지 마다하지 않은 개척지원의 모델은 분명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큰 마음의 선교라고 하였다.



9. 결론

한 인간으로서 감당기 어려운 초인적인 역사를 이룬 김충기 목사는 침례교단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고 비록 몇 번의 건강상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불굴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투지의 모범은 감히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권과 정치권을 한 손에 쥐었던 권세의 종인 엘리야가 승천해도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침례교단의 역사에 김충기 목사의 뒤를 이어 그 겹옷을 이어 받아 갑절의 역사를 이룰 젊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한다.

| 정리 안병국 목사 |

참고자료 회고록 “나의 나 된 것은”(이옥주), “강남중앙침례교회 창립 40년사”(김과홍순), “김충기 목사와 한국교회 부흥운동”(피영민), “한국 침례교 부흥사 오관선, 김충기 목사의 삶과 설교 분석을 통한 현대 설교적 적용”(이영범)

깨어나니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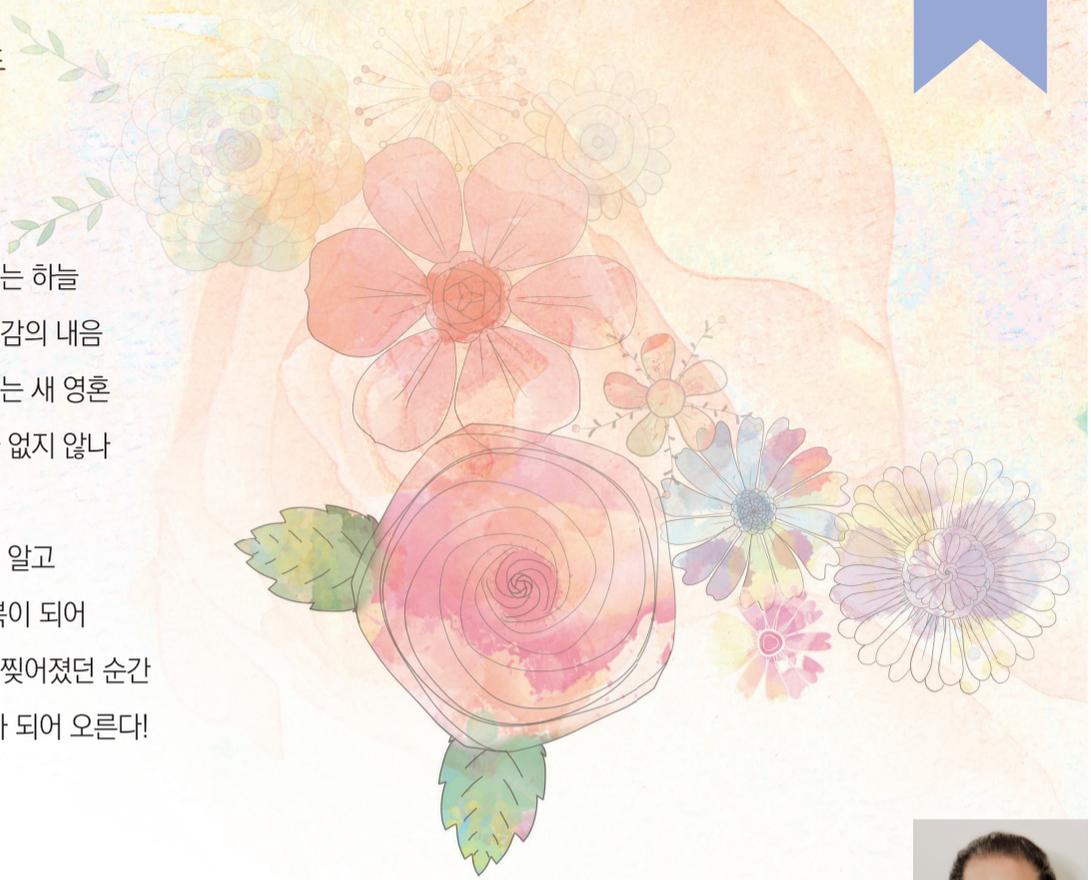
홍광표

세월에 휘인 날개 쪽지에
 어느덧 깃든 감사
 그 사이 사이 향기
 남모르게 베어든다

캄캄한 길 걸음을
 지탱하게 하는 놀라움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님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아침 바람 보내주는 하늘
 석양에 퍼지는 물감의 내음
 이 몸으로 들어오는 새 영혼
 이보다 좋은 감사 없지 않나

슬픔이 배경인 줄 알고
 매일 매를 맞는 북이 되어
 두들기는 아픔에 찢어졌던 순간
 그런 것이 다 감사 되어 오른다!



홍광표 집사

당연하다는 것

김진의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들을 마주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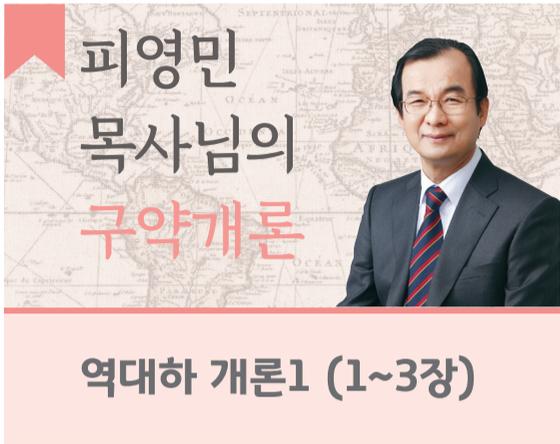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당연
 친구가 있는 것도 당연
 내 나라가 있는 것도 당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나에게
 '당연'이 아닌 '감사'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등부 김진의



역대상은 다윗 왕이 중심인물이지만,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왕이자, 또한 가장 어리석은 최악의 왕이었다.

1. 솔로몬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잠언 3,000개, 노래 1,005곡(왕상4:32~34)을 지었고, 음악, 과학, 문학, 예술에 능통하였고, 초목, 짐승, 새 물고기까지 논했다고 하였다.
2.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열왕보다도 부자였던 사람이었다. <대하1:12>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은 이 없으리라”고 했다.
3.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외교와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하여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견고한 평화를 누렸다.

1. 1장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1. 솔로몬은 새로운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다

윗왕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다. <대하1:7>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다. 9절에 솔로몬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했다.

2.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절 후반~10절>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라고 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마음의 부담이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3.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어리석음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이다. <대하1:14~16절>은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사들이고, 병가와 마병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7:16>에 모세가 경고한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은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라”고 했다. 솔로몬의 “암”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II. 대하2장은 솔로몬이 성전건축과 자기 궁궐건축을 결심하고 시작한 이야기이다.

1.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예배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족장시대에는 돌단을 쌓고 혹은 나무를 심으면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모세시대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 다윗시대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모셔두고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솔로몬시대에는 성막이나 장막이나 모두 도외시되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2.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III. 대하 3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 1) 첫째로, 솔로몬은 건설의 전문가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설계도 그대로 지은 것이다. 인간도 타고난 인생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며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 2)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대하2:6>에 “내가 누구관대 어찌 능히(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 이니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삶의 동기와 방향이 분명해 지고, 삶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다.
- 3) 셋째로, 솔로몬도 성소 앞에 두 눈기둥을 통하여 성전건축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부요와 평강”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 받은 제한적 축복이었다.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론

솔로몬은 성전건축에 성공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 편집위원 윤유진 |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꿀팁!

신앙의 베이지

예수님의 심문과 죽음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뒤, 예수님은 체포되어 끌려 가셨고 밤새 다섯 차례에 걸쳐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1차 심문 대제사장 가이바의 장인이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요 18:12~14, 19~23).

2차 심문 가이바와 산헤드린 공회의 심문을 받으셨습니다(막 14:13~65). 예수님은 거짓증인들의 증거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제사장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마 26:59~68). 새벽 무렵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 죄에 해당하며 공식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눅 22:66~71).

3차 심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눅 23:1~5) 유대 법정은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를 사형시켜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

인의 왕임을 밝히셨지만, 빌라도는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차 심문 로마의 분봉왕이자 빌라도의 정적인 헤롯에게 호송되었습니다(눅 23:6~12). 헤롯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최종 판결을 위임했습니다.

5차 심문 빌라도에게 2차로 심문을 받으셨습니다(눅 23:13~25).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유대 지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과 고문을 당한 다음, 금요일 아침 9시쯤 갈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외곽의 언덕에서 일반 죄수로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막 15:25, 눅 23:26~33).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갖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세상의 재앙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의 심문과 죽음

- ① 안나스에게 심문을 받으심(요 18:12~14, 19~23)
- ② 가이바와 산헤드린 공회의 심문을 받으심(막 14:53~65)
- ③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심(눅 23:1~5)
- ④ 헤롯에게 심문을 받으심(눅 23:-12)
- ⑤ 빌라도에게 다시 심문을 받으심(눅 23:13~25)
- ⑥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요 19:17~30)
- ⑦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동산의 무덤에 묻히심(눅 23:5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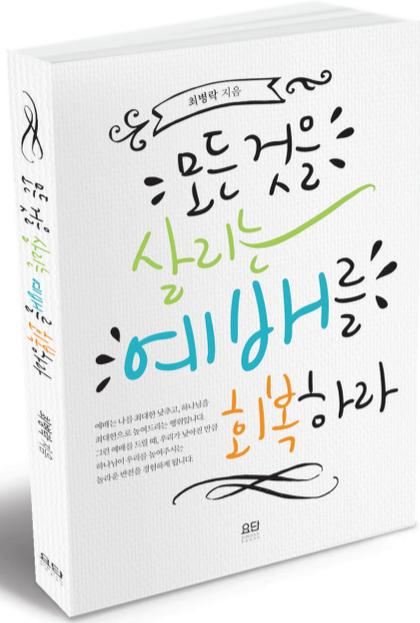
출처 © 성경인스프레스 (규장)

| 편집위원 최준호 |

강중침 WORLD 비전

- W Worshipping Church
- O Oikos Church
- R Reaching Out Church
- L Life Giving Church
- D Discipling Church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담임목사님 최신간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출간!

주일예배·수요일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일	오전	am	10:45	저녁	pm	7:15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교회 오는 길



2020 Rise up Oikos 설교 시리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 2:42)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 1^{week} 왜 목장인가
- 2^{week} 왜 목자인가
- 3^{week} 왜 기도하는 목장인가
- 4^{week} 왜 생명을 낳는 목장인가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교구	387209:59
남전도회	187115:2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29109:00
청년위원회	28677:15
교회학교	8449:05
총	총 시간 779178:21
남은 시간	220821:39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2020년 4월 5일(제207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박세환 전도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감해순·김영숙·리림·박버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cisnot@hanmail.net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물 ■ 은혜지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